

채비

작고 아름다운 이별

2024년 2월 뉴스레터 vol. 73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조합 소식 채비몰, 설 선물 기획전

24%의 기적 희망의 여정

채비추모장례 이야기 원주 산수골에서 마을장례를 꿈꾸다

메멘토모리 아픔과 상처는 겁내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야

Q: 채비몰이 무엇인가요?

Q: 어떤 제품들이 있나요?

Q: 채비몰에서 사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채비몰은 조합원의 '관심사' 중심으로 제품을 입점시키고, 판매와 소비를 촉진시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중에 없는 제품이거나 온라인 최저가를 지향하여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습니다.

Q: 어떻게 구입할 수 있나요?

A: 최저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몰로 운영하다 보니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비몰 설 선물 기획전 추천 상품 안내 (클릭)

희망의 여정



눈이 내린다. 작년 올해 참 눈이 잦다. 강원도 어딘가는 무릎 높이까지 눈이 내렸단다. 아파트 경비원 순호 형은 눈이 반갑지 않다. 넓은 단지에 내린 눈을 혼자 치워야 하니까. 강한 바람으로 눈을 날리는 송풍기나 기계식 제설 장비는 주민들이 쓰지 못하게 한단다. 냄새나고 시끄럽다고. 눈을 치워본 사람은 안다. 그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비닐하우스촌에 사는 영숙 누님은 요새 회의에 잘 못 온다. 누님은 얼마 전부터 포장마차를 시작했다. 생업 겸 자신이 사는 마을공동체에 보탬이 되고자. 눈이 많이 내린 날 누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무거운 눈에 지붕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돼서. 누님은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괜히 전화했나 후회했다. 내 전화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얼마 전 협동조합 중간지원 조직에서 실직한 후배를 만났다. 괜찮냐고, 어디 갈 곳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표정이 어두워지며 몰라요, 했다. 괜히 물었다 싶다. 나의 물음이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고 보니 지난해 유독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다. 그들은 또 어떤 고통에 직면하게 될지. 부디 그들이 회복력을 잃지 않기를.

사무실 앞 필동매운탕은 진작에 문을 닫았다. 해물나라 사장님은 폐업을 고민 중이다. 홍짬뽕 사장님도 허리가 아파 일을 접었다. 대한참치는 육류 메뉴를 추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우려로 손님이 줄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우연히, 폐업한 사장님이 다른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보았다. 아는척 하지 않았다.

며칠 전 사회적경제 진영의 후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적경제는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원 감축, 기관 폐쇄, 예산삭감 등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끝에 내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자조적으로 말했다. 그러자 후배가 희망은 만들어가는 거지요, 했다. 희망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앞서 언급한 이들은 대부분 우리 조합원이거나 이웃들이다. 조합원들에게 신년 인사를 건내려다 그들 생각에 우울한 얘기만 한 것 같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든다. 희망은 상대적 개념이다. 절망이나 좌절이 없다면 희망도 없다. 절망한 사람만이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 절실하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에게 희망은 무엇일까. 더 갖는 것? 그것은 희망이 아니라 탐욕이다. 결핍이 없는 사람에겐 허무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자신이 원해서 결핍 상태가 된 사람은 없다. 그저 주어진 것 뿐이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결핍에서 충만으로 가는 과정이 인생 아닐까.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나의 결핍은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데서 희망의 여정이 시작된다. 여러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나의 결핍은 오직 나의 의지로만 극복될 수 있다. 나에게 희망은 조합원에 대한 의무에서 출발한다.

어느 시인은 말했다. 희망은 의무를 동반한다고. 간절히 원하고, 어떤 절망에도 굴하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굳은 약속이 필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마치 사랑을 꿈꿀 때 모든 걸 거는 것처럼. 행동이라는 의무를 자임하지 않는 모든 희망은 가식이라고. 나의 희망이 거짓이나 공염불이 되지 않으려면 의무감을 갖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한다. 나무의 크기는 가지만큼 뻗어 나간다. 찬물로 세수하고 길을 나선다. 겨울바람이 제법 매섭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한 해 고맙습니다. 우리 조합을 믿고 지켜주었습니다.

올해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성과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

김경환 | 한겨레두레협동조합 상임이사

*전체 납입금 중 운영비율을 의미하는 ‘24%의 기적’은 조합의 중요한 이슈와 가치를 담은 칼럼입니다

원주 산수골에서 채비마을장례를 꿈꾸다



24년 1월 23일에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산수골을 찾았다. ‘부론富論’이라는 다소 독특한 이름을 가진 지역에서 2012년 정도부터 이곳에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어 온 이도형 촌장을 만났다. 꽤 괜찮은 직장을 다니다가 아내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고 재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그는 살고 싶었다고 한다. 이후 부모님이 주신 작은 자리에 한 집 한 집 손수 목조 주택을 지어나갔다. 땀과 눈물로 엮히고 도배된 참 지난한 과정이었다. 지금은 11동이 있는 아름답고 작은 ‘산수골’ 마을이 되었다.

이도형 촌장은 마을에서 살았으니, 마을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대표 자리도 40대 젊은 일꾼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마을에서 잘 죽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산수골과 이웃 마을 어른들 100명의 생애를 기록하는 ‘백성실록’ 작업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방문의 계기는 작년 12월 18일 원주 갈거리협동조합이 주관하고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 발표하는 포럼이었다. 이곳에서 그는 최근 우리 조합이 하는 작은 장례와 추모식과 임종기 준비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의 표현으로는 2014년도에 불었다가 꺼진 불이 2023년에 다시 불었다고 한다.

산수골은 최근에 청년 4명이 자급자족 공동체 실험을 위해서 ‘범고래’라는 공동체로 이곳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활기를 얻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도형 촌장이 제공한 밭에 특수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하며 문화 활동을 함께 해나간다. 주변에 ‘터득골’이라는 독립서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마을과도 열심히 교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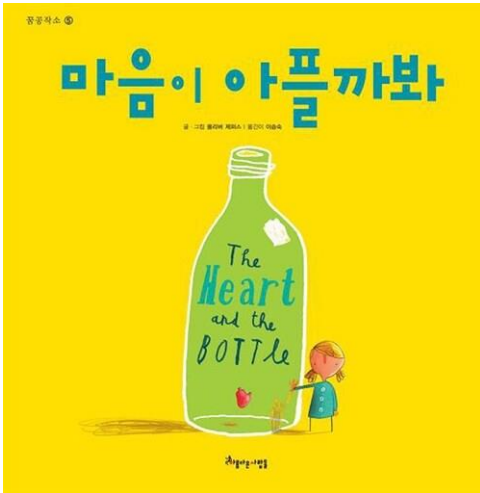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는 이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아름답고 작은 장례문화를 지역 기반으로 만들어가고, 그 기억을 기록과 공간의 형태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리되는 것 같다고 했다. 올봄에 마을 강의 때 채비강좌를 함께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다. 이것은 한겨레두레가 지역사회와 함께 꾸는 꿈이다. 최근에 몇 지역에서 비슷한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뚜렷한 결과물이 없다.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겨레두레 조합원이 한국 사회의 장례문화 변화에 가장 큰 조직화한 동력임을 자타가 인정한다. ‘마을에서 살고, 마을에서 죽는 채비마을장례’를 산수골 이도형 촌장 같은 한겨레두레 조합원이 한 걸음씩 내딛다보면 조만간 다다를 것으로 본다. 올해는 조합원 중 10%가 자신처럼 꿈꾸는 조합원을 꼭 한 분 만드시기를 응원해 드린다. ✿

전승욱 | 채비장례 추모플래너



아픔과 상처는 겁내는 게 아니라 맞서는 거야



마음이 아플까봐

올리버 제퍼스 | 아름다운사람들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의 곁에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소녀에게 할아버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마음의 준비도 없이 소녀는 할아버지를 잃고 맙니다. 소녀는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그만 마음을 떼 내어 유리병에다 넣고 맙니다.

마음을 유리병에 가두자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열정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바닷가에서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아이는 예전에 소녀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코끼리는 왜 바다에서 수영을 못하나요?”

마음이 없는 소녀는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소녀는 그제야 유리병에서 마음을 꺼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아플까봐〉의 호기심 많은 소녀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맞닥뜨리자 그것을 극복하기보다 세상과의 단절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수많은 호기심들과 수많은 가능성들에게서 도망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어릴 적 자신을 닮은 호기심 많은 작은 아이가 소녀의 마음을 열어 줍니다. 그리고 소녀는 그동안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빈 의자에 앉습니다. 소녀는 다시 어릴 적 품었던 수많은 호기심들과 만났고, 드넓은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책은 묻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숨을 것인지, 그 아픔을 이겨 내며 드넓은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인지.

〈마음이 아플까봐〉는 우리에게 몇 가지 묵직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아픔과 상처는 우리 내면의 성장 동력이며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합니다. 또 진정한 성장은 누군가의 의자이자 그 의자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

(출판사 책 소개 중에서 발췌)

‘메멘토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이며, 삶과 죽음에 관련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2024년 1월

조탁준 조합원 모친상
맹계현 조합원 시모상

남궁철 조합원 모친상
백숙희 조합원 부친상

고석배 조합원 부친상
정수경 조합원 배우자상

2023년 12월

김나인 조합원 지인상
손백호 조합원 모친상
홍순덕 조합원 모친상
박현숙 조합원 모친상
강명구 조합원 모친상
이한기 조합원 모친상

김중국 조합원 모친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전승욱 조합원 지인상
양미애 조합원 시아주버니상
조영자 조합원 시모상
김창언 조합원 자녀상

구은경 조합원 모친상
이한련 조합원 모친상
신수정 조합원 시모상
정태성 조합원 부친상
이인재 조합원 모친상
조현정 조합원 부친상

2023년 11월

모성훈 조합원 모친상
강정자 조합원 모친상
안병렬 조합원 모친상
장국진 조합원 모친상
진원섭 조합원 배우자상
박태호 조합원 지인상
반민석 조합원 부친상

이창우 조합원 부친상
유근혁 조합원 모친상
이지숙 조합원 조모상
윤정현 조합원 부친상
윤미현 조합원 시부상
이동근 조합원 장모상

최대원 조합원 형제상
정홍근 조합원 부친상
박희주 조합원 모친상
김종필 조합원 부친상
오종수 조합원 장모상
문희정 조합원 모친상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별이 아닌 작별을 위한 시간

떠나기전愛



'떠나기전愛'는 채비의 **생애작별식** 프로그램입니다.
살아생전에 지인과 친척을 초대해
고인이 주인공이 되는 아름다운 작별식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생애사/생애영상, 취미 및 업적 전시/공연, 추억과 이야기 나눔, 마지막 인사와 축복,
음식과 다과 나눔

※ 프로그램은 당사자/가족의 요청으로 함께 기획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공간채비 (충무로역 도보 5분)

▶ 신청 : <https://forms.gle/NKpVA2SuKCGDjKKGK7>

☎ 문의/상담 : (02) 739-9517

해피 웰다잉을 준비하는 사람들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합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지혜의 걸작이요,
삶이라는 위대한 예술에서 가장 어려운 장이다.**
- 앙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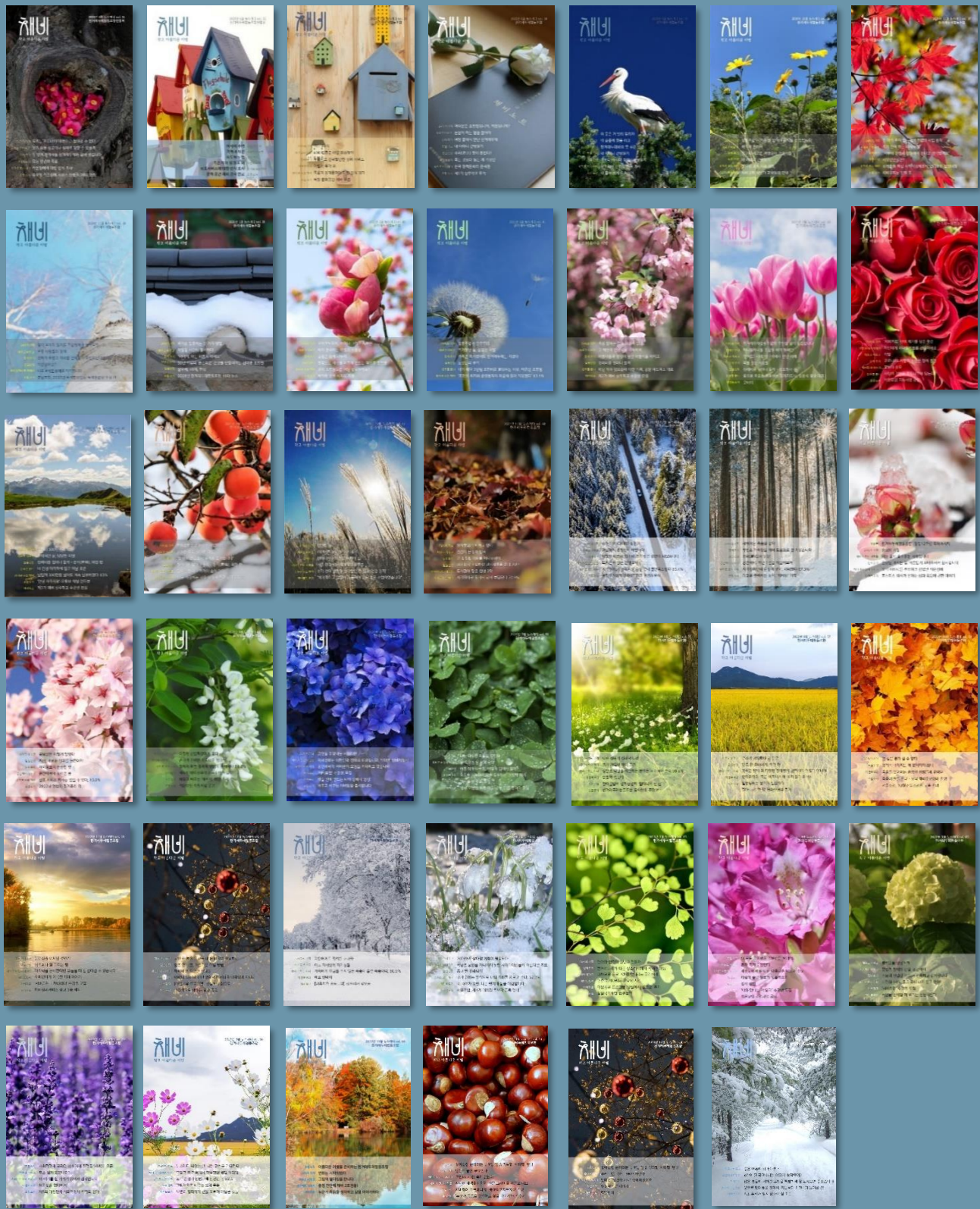
'채우고 비우고' 오픈채팅방은 삶과 죽음을 의미 있게 설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간입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이며, 공간채비를 중심으로 스터디, 취미 생활, 교제를 위한 오프라인 모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링크) <https://open.kakao.com/o/gO5HMzme>

채비레터 과월호 목차

클릭하면 다운로드 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대한민국 대표 장례서비스 협동조합입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풀뿌리공제정신에 공감한 이들이 공동체의 힘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모였습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이며 상업화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올바른 인식을 고취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직계존비속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례지도사와 접객관리사가 같은 조합원으로 한 식구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 · 직거래공동구매 방식으로 소박하고 품격 있는 장례를 구현하며 갈수록 고비용화 · 대형화 · 독과점화하는 병원장례식에서 벗어나 추모의 깊이가 있는 ‘작은장례’를 지향합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

www.chaebi.life

서울시 중구 서애로1길 11 충무로 헤센스마트 B113호(사무실), 상가 201호 (공간 채비)

가입문의 1800-9517 장례문의 1588-9517 대관문의 02-739-9517

채비 뉴스레터는 조합원 참여를 환영합니다

장례 문화에 대한 투고(장례후기, 에세이, 시 등), 조합에 대한 의견, 개업/사업 소개 등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보내주세요(master@handurae.org)